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15.(월) 12:00
(지면) 2026. 6. 16.(화) 조간

산불 피해 막은 현장의 숨은 유공자, 정부가 찾아 대대적으로 포상한다

- 지난해 대비 산불 피해면적 및 인명피해 대폭 감소 등 가시적 성과 달성
- 산불 피해 감소에 기여한 유공자를 폭넓게 발굴해 포상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봄철 산불 예방·대응 및 주민보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추진한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20.~5.15.) 동안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722ha로 지난해(104,975ha) 대비 99% 줄었으며, 인명피해(사망)는 단 한명도 발생(지난해 32명)하지 않았다. 또한, 산불 진화에 걸린 시간은 평균 1시간 34분으로 지난해(평균 3시간 44분) 대비 48% 빨랐다.

이에 “산불 예방·대응 성과에 대한 각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분석해 대대적으로 포상하라”는 대통령 지시(5.12. 국무회의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봄철 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포상을 추진한다.

>> 선제적인 범정부 총력대응체계 가동이 산불 피해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

먼저, 행정안전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포상을 위해 봄철 산불방지 성과 요인을 면밀히 분석했다.

분석 결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2.1. → 1.20.), 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와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한 것이 산불 피해를 줄인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불 확산이 우려될 경우 신속히 상황판단회의를 개최(13회)해 정부 대응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산불 위험이 지속되는 여건을 고려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책지원본부를 연장 운영(~5.15. → ~6.3.)하며 산불 대응 태세를 유지했다.

또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25년 8.7만 톤 → '26년 9.6만 톤)하고, 2만 명 규모의 산불 기동단속반을 운영했다. 국민들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2.13.)하고 현장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홍보와 계도 활동에도 주력했다.

초기 진화 역량도 크게 강화했다. 군 헬기(143대)를 포함해 산불 진화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 규모를 216대에서 325대로 50% 확대하고, 국가 소방동원령의 선제적인 발령과 대형산불 확산 전 국가 통합지휘체계(산림청장 지휘) 가동을 통해 산불 진화를 위한 가용 자원을 신속히 투입했다.

아울러, 산불 인근 주민 보호를 위해 순간최대풍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화선 도달시간에 따른 'Ready-Set-Go' 주민대피체계를 도입한 점도 인명피해를 막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 산불 방지에 기여한 공무원·민간인 유공자까지 폭넓게 발굴·포상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성과가 관계기관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뤄낸 결실인 만큼, 기관 추천과 국민 공모를 병행해 산불 방지에 기여한 개인(공무원·민간인 등)과 기관·단체를 폭넓게 발굴한다.

이번 포상 규모는 총 490점*이며, 후보자 추천(6.10.~26.)과 공적심사(7월) 등을 거쳐, 올해 8월 중 포상 전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정부포상 90점(잠정), 기관장표창(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 400점

윤호중 장관은 “선제적인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해 올해 봄철 산불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라며,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그 공로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상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사회재난실 환경산림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안길주	(044-205-6170)
		담당자	사무관	박원일	(044-205-6183)

